# 순천시 소상공인 200만원씩 지원

## 1만9741곳 394억원 지원 확정
## 정부보다 앞선 지원 체계 마련
## 위기의 골목상권 살리기 본격화

순천시가 정부보다 앞선 소상공인 재난지원 체계를 마련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순천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를 마무리한 결과 총 39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힘든 골목 경제를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 업체당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된 신속 지급 대상업체로 2021년 12월 전남도 소상공인 일상 회복지원 대상자 1만 3418개 업체 외에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한 6672개 업체 등 총 2만 90개 업체에 대해 지원을 검토했다.

시는 2만90개 업체 가운데 대상업체로 선정이 안된 349개 업체를 제외하고 1만9741개 업체에 대해 순차적 지원에 들어갔다.

1만 6604명에게는 이미 확보된 예산 330억 원으로 1차 지급을 완료했으며, 매출 감소 등의 증빙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3137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64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5월 중순까지 차례대로 2차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완화된 정부 방침에 의한 2차 방역 지원 대상자가 추가되고, 이발소·세탁소 등 영세 자영업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순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예상보다 지원 대상자가 확대됐다.

시는 신고된 소상공인 자료는 분야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순천시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새정부 차원의 손실보상 기초자료로 사용해 보상에 빠지는 시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손점식 순천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본격적인 시너지를 발휘해 골목상권을 살찌우고, 어려운 시간을 끝까지 견뎌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곡성군 어린이날 맞아 지역사회 나눔 확산

## 목욕 쿠폰·문구류·쌀 등 지원

곡성군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사회의 다양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옥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취약한 주거 공간 등으로 위생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초·중등생 17명에게 총 200장의 무료 목욕 쿠폰을 지원했다. 〈사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협의체가 2021년 마을복지계획 우수사례에 선정돼 받은 포상금과 창포옥사우나(대표 김홍열)에서 받은 후원금(40만원 상당)으로 충당했다.

옥과면 청년회(회장 김상순)에서는 저소득 가정 중 지원이 필요한 초등학생 10명에게 문구류 선물 세트(총 50만원 상당)와 함께 쌀 20kg 4포대를 지원했다. 또 지적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50만원 상당의 식탁을 전달할 예정이다.

청년회원들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어린이날을 보내고,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 여수시 전 직원 대상
## 지역 쌀 사주기 운동

여수시가 최근 쌀 가격 하락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지역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최근 기상변화와 수입 농산물 개방 확대, 쌀 소비 부진으로 쌀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쌀 사주기 운동'을 시작했다.

여수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번 캠페인에는 전국의 여수향우회원, 유관기관과 단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 쌀 구매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시중 가격보다 20㎏은 4000원, 10㎏은 2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쌀 구매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061-659-4514)로 하면 된다.

이번 행사 이후 지역 쌀 구매를 희망하는 분은 포털사이트에서 '여천농협쌀'로 검색해 여수쌀 전문 쇼핑몰인 '섬썸마켓'에 접속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코로나 19 확산 전 열린 '어린이날 가족놀이 한마당 행사' 모습. 〈구례군 제공〉

# 구례군 어린이날 가족놀이 한마당 행사

## 장기자랑·압화체험·모종 심기

구례군은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제23회 어린이날 가족놀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5일 서시천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구례군여성농민회가 주관하며 코로나 19로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된 지 3년 만에 열리는 야외행사다.

행사는 장애인복지관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와 놀이마당으로 꾸며진다.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지구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한다는 뜻을 담아 '지구를 지켜요' 캠페인과 4행시 짓기, 1회 용품과 생수병이 없는 행사가 펼쳐진다.

아울러 어린이가 운영하는 아나바다 장터, 현장접수로 진행하는 장기자랑, 한지부채 만들기, 압화체험, 희망의 모종 심어가기, 사찰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앞서 4일에는 사전행사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장기자랑과 모바일 게임 행사를 생중계로 진행했다.

이광동 구례군수 권한대행은 "3년 만의 야외 행사를 통해서 코로나로 지쳐있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행복이 되길 바란다"며 "구례 어린이들이 밝고 활기차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시티투어' 본격 운영

## 토요일·일요일 2개 코스
##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예약

광양시가 7일부터 광양 구석구석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시티투어'를 운영한다.

광양시티투어는 광양읍, 중마동 등 탑승지에 따라 토요일 코스와 일요일 코스 2개 버전으로 운영된다. 〈사진〉

토요일(광양읍) 코스는 순천역(오전 10시10분), 광양읍터미널(오전 10시30분)에서 탑승할 수 있으며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를 돌아본 후 광양불고기특화거리에서 점심을 즐기고 서천변을 산책한다.

이어 광양와인동굴, 이순신대교를 구경한 후, 배알도 섬 정원과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윤동주 시 정원이 있는 망덕포구 일대를 여행하고 광양읍터미널을 경유해 순천역(오후 6시)에 도착하는 코스다.

일요일(중마동) 코스는 순천역(오전 10시10분), 중마관광안내소(오전 10시40분)에서 탑승해 구봉산전망대를 투어하고 이순신대교 먹거리 타운에서 점심을 즐긴다.

이어 광양와인동굴,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를 관람하고 배알도 섬 정원과 망덕포구 일대를 투어한 후 중마관광안내소를 거쳐 순천역(오후 6시)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

광양시티투어에 참여하려면 매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유선으로 예약해야 하며, 5명 이상 예약 시에만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일반 3000원, 군인·경로·학생 2000원, 장애인·미취학아동 1000원이며,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식비 등은 별도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시티투어는 엄선된 광양의 대표 관광지를 편리하고 알차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시티투어를 통해 숨겨진 광양의 멋과 맛을 즐기고, 특별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고흥군, 역대 최대 규모 지방교부세 4634억 확보…현안사업 탄력

고흥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교부세 4634억원 재원을 확보해 민선 7기 목표로 세웠던 군 예산 1조 원 시대 달성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지방교부세는 올해 당초분과 추가 정산분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1078억 원(30.3%) 증가한 4634억원이며,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보통교부세는 4194억원, 부동산교부세는 44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내국세의 19.24% 총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 제한 없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이중 의존수입의 하나인 지방교부세는 고흥군 세입예산 중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고흥군의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2017년부터 3000억원대 범위 내에서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올해 가장 규모가 큰 역대 최대치로 4000억원대 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